

예상 밖의 심각한 물난리가 할퀴고 간 자리에 앞날이 막막한 많은 피해주민들의 한숨과 함께 찾아온 무더위와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을 편치 않게 하고 있는 이즈음 모두의 안녕을 두손모아 빌어봅니다.

하루 속히 우리 주변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고 희망찬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알려드리 는 말씀은 한국여성재단이 새로운 등치를 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.

지금으로부터 7년 전 5명의 실무자들이 양재동의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사무실 한 구석 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출범시킨 본 재단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국민은행 서초지점의 호의로 은행건물 5층의 한 칸에서 활동하면서 사업이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한 편 그에 따라 실무진도 11명으로 증원되었고 해를 거듭하며 축적된 문건들로 더 이상 그 공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정에 부딪쳤습니다.

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5년 하반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 2006년 5월 28일 서교동에 위치한 5층 건물(부지 000평 건평 000평)을 매입하여 1층에서 4층까지 는 재단의 수익을 위한 임대료, 5층은 본 재단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이 건물은 지은 지 17년이 된 건물로서 승강기가 없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만 부지 크기 에 비해 건평이 넓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이점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및 운영하는 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.

금번 5층을 본 재단의 사무실로 개조하면서 소요된 건축자재와 공간설계를 위한 노력, 넓어 진 공간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마련과 건물 표시를 위한 간판의 제작 등에 많은 기관과 개 인들의 기부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감격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

이제 재단관련 제반회의를 비롯한 업무를 더 이상 주변에 있는 다방 또는 식당에서 하지 않 아도 되어서 효율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여성들의 집입니다. 지나는 길에 언제나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. 모두 함께 기뻐해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.

머지않아 승강기도 설치되는 때쯤에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져야 하겠지요. 그때 될 생각을 기쁜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.